2023년 대통령기록관 체험 수기 공모전

□ 수상내역

○ 초등부

성 명	상별구분	훈 격	제 목
송준희	최우수	행정안전부장관상	미래 대통령 송준희-이곳에서 대통령을 꿈꾸다.
김민진	우수	대통령기록관장상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관
오지우	장려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
오연우	장려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이호재	장려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

○ 중·고등부

성 명	상별구분	훈 격	제 목
송채은	최우수	행정안전부장관상	대통령기록관 체험후기
강채원	우수	대통령기록관장상	대통령기록관 견학 후기
이하은	장려		대통령기록관의 노력
서하엘	장려		대통령 기록관 소감문
김도연	장려		대통령기록관 체험 감상문

○ **일반부**

성명	상별구분	훈격	제목
홍유기	최우수	행정안전부장관상	그와(대통령) 나의(국민) 등가 교환은 성립할까?
안종경	우수	대통령기록관장상	축적의 힘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류세현	장려		기록을 타고 성큼 다가섭니다
주호연	장려		색안경을 벗고 바라보는 대한민국
이상열	장려		민주주의의 선순환

□ 작품

○ 최우수_송준희(초등부)

제 목	미래 대통령 송준희 - 이곳에서 대통령을 꿈꾸다.

화창한 가을날, 우리 가족은 대통령기록관 견학을 갔다. 대통령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되고 떨렸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대통령이 타셨던 전용 리무진을 살펴보았다.

대통령 차가 굉장히 멋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난 대통령들의 사진을 전시한 공간에서 대통령들의 사진과 성함을 살펴보았는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로 만들어진 사진이었다. 대통령이 되셨을 때 취임사 문장으로 얼굴을 만들어졌다고 하여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대통령의 목소리로 듣는 취임사도 한 번 들어보았다. 취임사 속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들렸다.

가장 아름다웠던 공간은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이 곳은 대통령의 글씨를 장식해 놓은 공간이었다. 대통령들의 글씨는 멋지고 품위있었다. 아버지가 여러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가장 멋있었던 대통령의 글이었다.

또 다른 아름다운 공간은, 값진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 곳을 둘러보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엄마는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귀한 선물들을 주고 받기도 하는 활동이 외교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친구와 친해지고 싶을 때 선물을 주고 받듯이 우리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하며 친한 관계를 가지려 한 것도 인상깊었다. 기록관 안에는 자원봉사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셨다. 내가 8살 때 갔을 때도 계셨는데, 여러 해 동안 계시며 대통령의 이모저모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지혜로우시고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았다. 할아버지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영어를 잘 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도 해 주셔서 재밌는 배경지식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실제 일도 하시고, 생활하는 공간이던 청와대의 여러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 보았다. 그 곳에서 엄마는 내가 대통령이 된 듯 나를 인터뷰 해 주셨다. 엄마가 “송준희 대통령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실까요?’라고 물어보셔서, “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도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재밌게 즐겼던 곳인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실제로, 대통령되기 프로젝트 활동들을 해보며 선거 포스터도 만들어 보고, 당선이 된 듯이 카퍼레이드도 해보았다. 나의 선거 포스터 표어를 나는 ’국민을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포스터를 만들고, 취임우표도 만들어 보며 대통령이 되는 상상을 해보았다. 이번 기회로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꿈도 꾸어 볼 수 있었다.

내가 30년 후쯤이나 40년 후쯤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이 되어 안전하고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기록관을 견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날이었다. 많은 친구들이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 참 고마운 공간이다. 미래에는 나의 모습도 이 곳에 멋지게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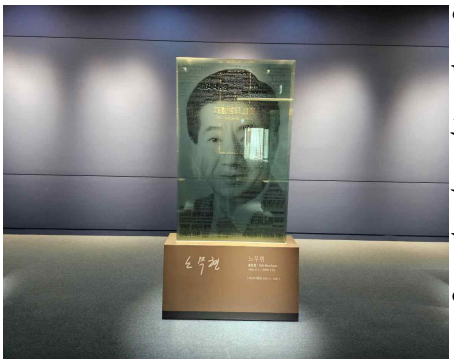
○ 우수_김민진(초등부)

제 목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관

나는 평소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만 해도 역사라고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5학년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느꼈고, 이어서 6학년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배우면서 역사와 근현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대통령기록관과 청남대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다. 선생님께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둔 곳이고, 청남대는 대통령이 전에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개방된 곳이라 하셨다. 내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임기는 5년, 그리고 투표는 국민들이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을까?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세종으로 향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선생님이 도착했다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독특한 건물에 대통령기록관이라는 큰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서야 안 것이지만, 독특한 건물은 국새 보관함을 형상화해서 지어진 것이라 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은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었다. 리무진 앞 번호판에 청와대 로고가 있었는데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벽면엔 대형 스크린도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앉아서 조금 기다리자, 해설자 선생님이 오셨다. 우리는 바로 해설자 선생님을 따라 대통령기록관 관람을 시작하였다. 1층 대통령의 전당 전시관에 들어서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유리로 겹겹이 세워둔 것이 보였다. 멀리서 보았을 땐 대통령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대통령을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가 모여 있었다. 각 대통령의 주요 키워드를 보며 그 인물의 업적 같은 것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1층 관람을 마치고 바로 4층으로 올라갔다. 4층 대통령의 역할 전시관에는 대통령제의 변화 과정, 선거와 취임,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들을 볼 수 있었다.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기도 했고 해설자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4층엔 대통령의 휘호도 있었다. 해설자 선생님께서 휘호는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것이라 하셨다.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어서 뜻은 정확히 몰랐지만 얼핏 보아도 무언가를 굳게 다짐하며 쓰신 것이 느껴졌다.

4층 관람을 마치고 2층 대통령의 선물 전시관에 갔다. 원래는 3층 대통령의 공간 전시관을 갔어야 하는데 공사중이라 관람을 못해 아쉬웠다. 이곳 2층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은 선물들과 청와대 기념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도자기, 화병, 금빛 장신구, 보석인형 등 정말 많은 선물이 빼곡히 있었다. 해설자 선생님께서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물건들을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셨다. 금, 은, 보석 등 반짝이는 기념품이 특히 눈에 띄었다.

2층 관람도 마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 1층에는 대통령들이 탔던 자동차들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는 자동차였다. 나도 직접 탑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선거와 민주주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 선거의 4대 원칙(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과 민주주의 강의를 들으며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신 역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뽑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앞으로 나도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기록관 체험을 모두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청남대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청남대를 가는데, 가는 길이 정말 멋졌다. 특히 울창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호수가 인상깊었다. 멋진 풍경을 보며 가다 보니 어느새 청남대에 도착했다. 잠시 앉아 기다리니 해설자 선생님이 오셔서 관람을 시작하였다. 대통령 기념관을 먼저 관람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대통령 기념관은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될 때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됐다고 했다. 이곳엔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 대통령 외교 선물,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사용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가 있었는데 옛 대통령 포스터는 정말 신기했다. 이승만 대통령 포스터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었다. 또 대통령선거의 계보도 보았고, 직접 선거용지에 투표하는 체험도 해보았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 나도 선거 유권자가 된 것

같았다. 다음으론 대통령의 외교 선물을 보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 본 것과 비슷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지 못했던 선물도 보아서 좋았다. 또 청남대가 개방 되기 전, 대통령이 사용한 물품들을 보았다. 각 대통령이 사용한 물건을 보면 다들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신기했다.

대통령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우린 해설자 선생님을 따라 청남대 본관으로 향했다. 걸어서 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가다보니 어느새 본관에 도착했다.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면 정말 넓은 거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 평수가 800평이다!) 이후에도 해설자 선생님을 따라 본관 관람을 하였는데, 이런 집에 살았던 대통령이 정말 부러웠다.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청남대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많은 대통령들이 방문했다고 하였다. 본관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그늘집으로 향했다. 그늘집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넓은 호수 대청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였다. 이곳도 풍경이 정말 예뻐 친구와 사진도 찍었다.

청남대 관람까지 마치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다. 오전 시간에는 대통령기록관, 오후 시간에는 청남대 관람을 하였다.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이 둘러보지 못한게 아쉽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통령제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배우며 많은 점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 유권자가 되어 다시 대통령기록관에 와보고 싶다. 대통령기록관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장려_오지우(초등부)

제 목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

나는 지금의 담임선생님과 5학년, 6학년을 합쳐 2년째 만나고 있다. 같은 선생님을 연속으로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도 많았다. 특히 우리 담임선생님은 그동안 우리를 위해 배움과 재미가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해주셨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6학년 사회 시간에 배운 역사와 민주주의를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여러 체험을 다녀왔다. 지금까지 간 곳만 국회의사당, 천안시의회, 청와대, 대전 솔로몬로파크 등…….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이해가 잘 되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또 다른 체험을 준비해 주셨다. 이번에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떤 좋은 체험을 할 지 기대되었고, 설레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내부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멋지고 신기했다. 벽면에는 큰 스크린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타셨다는 큰 리무진도 보였다. ‘나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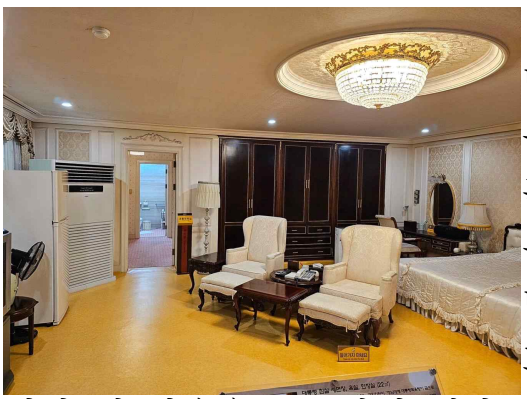
주변을 구경하던 중 해설자님이 오셔서, 대통령기록관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먼저 ‘대통령의 전당’이라는 전시관에 들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글자들로 겹쳐 만들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글자들이 각각 대통령과 관련있는 글자였다. 신기한 마음에 사진도 많이 찍고, 재미있는 전시관이었다! 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설명해주셨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더욱 기억에도 남고 흥미로웠다.

그 다음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주고받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전시관에 갔다. 장신구, 보석, 인형 등 여러 물건들이 있었다.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이런 물건들을 받아보고 싶었다. 흥미롭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곳은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다.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차

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웅장하고 근사했다. 나도 이런 차를 탈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기록관의 마지막 시간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론수업을 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평등선거에 대해 배웠다. 설명 중간중간 재미있는 퀴즈도 내 주시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뉴진스와 아이브 같은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 포토카드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해설자님이 수업을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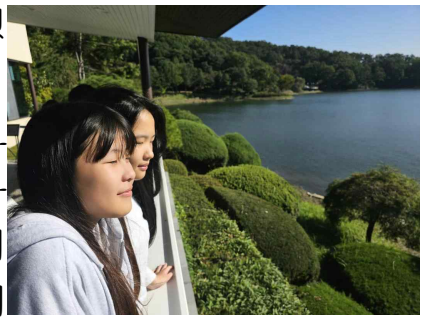
대통령 기록관 체험을 끝마치고 청남대에 갔다. 버스로 산을 올라갔는데 창문으로 본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뻤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들어가자마자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였을 때 사용했던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멋져보였다. 왠지 그 때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가보았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도 많았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다.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던 물건이 전시되어 있던 곳도 가보았다. 전시된 물품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취미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대통령들의 손모양을 본떠놓은 동상에 손을 맞대보기도 했다!



길을 조금 올라가서 대통령이 지내며 사용했던 별장 본관에 들어가 보았다. 밖에서 본 것과 다를 것 없이 내부도 깔끔하고 멋졌다. 또 본관에는 많은 방들이 있었다. 침실, 접견실, 거실, 집무실 그리고 미용실 같은 편의시설까지 있었다. 별장에 미용실이라니……. 놀라울 나름이었다. 또 각 방마다 있는 큰 창문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이 내 마음을 포근하게 했다. 이런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지내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들이 골프를 치며 놀았던 장소도 가보았다. 넓은 들판이 있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전망대도 가보았다. 큰 호수가 있어 너무 예뻤고, 스트레스가 생겨도 여기 앉아있으면 스트레스가 바로 풀릴 것 같았다.

이렇게 대통령기록관과 청남대 체험을 모두 마쳤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체험한 곳은 항상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체험도 역시 내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많은 교육과 체험을 하면서 대통령제와 선거의 여러 가지 종류, 민주주의에 대해 새롭게 배워갈 수 있었다. 열심히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곳이 널리 알려져서 다른 친구들도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벌써 집에 간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방문해 더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 정말 뜻깊고 기억에 남는 체험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장려_오연우(초등부)

제 목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2023년 10월 12일, 우리 반은 대통령기록관에 체험학습을 갔다. 다양한 체험을 했던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글로 소개하려니 설렘이 느껴진다.

오전 9:10 우리 반은 1층으로 내려가 줄을 맞춰 섰다.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 가게 되어서 그랬는지 대통령기록관이 매우 기대가 되었다. 잠시 뒤에 버스가 왔고 우리 반은 버스에 탔다.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친구들이 잔뜩 기대한 것이 눈에 보였다. 나도 기대가 되었는지 가는 내내 싱글벙글해 있던 것 같다.

오전 9:40 버스가 멈췄다.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했다고 한다.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기사님이 가시고, 선생님께서 우리가 다 내린 것을 확인하신 후 우리는 '대통령기록관'이라고 새겨진 표지석 앞에서 각자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오전 10:00부터 입장할 수 있어서, 우리는 버스에서 내린 곳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가 길게 펼쳐진 쉼터에서 10:00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선생님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20분 정도의 시간을 웃음과 함께 보냈다.

곧 10:00가 되었고, 우리 반은 대통령기록관 앞으로 갔다. 선생님께서 인원 확인을 하셨다. 대통령기록관은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독특해 보였다. 우리는 대통령기록관의 안 1층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들이 펼쳐져 있어 매우 놀랐다. 공항에서 볼 수 있었던 문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신기해하며 그것을 통과했다. 물을 마신 후,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쪽 벽면에 빔프로젝터로 비춘 것 같은 화면이 생겼고, 심지어 화면이 바뀌고 있었다! 벽에는 임기가 끝나신 전 대통령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나와 있었다. 신기해하며 이동해 강당으로 왔다. 해설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펜과 클립보드, 책을 주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은 펜이 귀엽다며 정말 가지고 싶어 했다.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펜이 기념품이

라고 알려 주셨다. 나는 펜만큼이나 감동한 것이 또 있었는데, 바로 클립보드였다! 5학년이 되고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체험학습을 많이 가게 되었는데, 무엇을 적을 때마다 대고 적을 곳을 찾는 것에 조금 지쳐 있었다. 그런데 클립보드가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해설사 선생님은 다 같이 사용하는 클립보드를 떨어트리면 깨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달라고 하셨다.

또 우리 반 친구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반에 문제를 내어 주셨다. 많은 친구들이 대통령에 대해 기록하는 곳이라고 답했는데, 해설사 선생님은 임기가 끝난 대통령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말해주셨다. 임기 5년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기록과 받은 선물, 사용하셨던 물건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온다고 하셨다. 큰 화면으로 영상도 봤는데, 건물은 국새 보관함의 모양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3층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3층에는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많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가서 3층을 구경하고 싶다.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마지막에는 자신만의 휘호를 만들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휘호 만들기가 끝난 뒤 자유롭게 구경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 흥미로웠던 것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돌을 구멍에 꽂으면 영상이 나와 그 대통령의 업적 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휘호도 봤는데, 액자 안에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이 멋지게 적혀 있었다. 임기 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받으셨던 선물들이 모아져 있는 2층도 가보았는데, 도자기와 보석들, 장신구들도 매우 멋져 보였고, 처음 보는 체스판도 있어서 관심이 갔다. 1층에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분들의 얼굴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단어들을 다양한 크기로 여러 겹의 유리에 배치한 것이 보였다. 텍스트 아트라고 한다.

우리 반은 점심을 먹기 전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했는데, 처음 왔던 문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이 처음이었고, 조금은

낯설었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보게 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2023년 10월 12일, 대통령기록관에서.

○ 장려_이호재(초등부)

제 목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하여 입장하자마자 놀라움이 나를 감쌌다. 그 이유는 보안이 좋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다 보니 방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 같았다.

소지품 검사를 마치고 중앙 홀을 보니 몇몇 대통령이 썼던 리무진이 있었다. 독일산인 걸로 보아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왼쪽 방으로 들어가니 역대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들로 텍스트아트를 만든 걸 보았다. 글자들을 이용해 대통령들의 얼굴을 구현해 낸 것이었다.

4층으로 올라오니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6학년 1학기 때 교실에서 만나본 내용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며 다시 한번 복습하니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3층에서는 대통령들이 서예로 직접 쓴 문구가 있었고 청와대에 있는 접견실과 집무실을 그대로 만든 곳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그 옆에는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2층에서는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러시아에서 온 체스가 가장 멋있었다.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체스를 즐겨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본 체스판으로 체스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멋있고 짜릿할 것 같았다. 지하 1층으로 가니 역대 대통령 분들이 탔던 리무진과 자동차가 있었

다. 다시 2층으로 가서 선거의 규칙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다 끝난 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육개장과 김치전이 나왔는데 맛있었다.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다. 다음에는 가족끼리 와서 천천히 관람하고 싶다.

○ 최우수_송채은(중·고등부)

제 목	대통령기록관 체험후기(대한민국의 역사를 빛낸 리더들의 발자취)

2023년 7월 14일, 우리 인천 금융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견학 차 방문했다.

두 달 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회에게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방문 일정을 안내해 주실 때 평소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진희가 학생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통유리로 되어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외관 사진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마치 유럽에 있는 박물관 같은 신기하고 세련된 모습에 우리들은 모두 “와-” 하고 감탄했다.

마침내 방문 당일 아침, 부푼 기대 속에 눈을 떴을 때 밖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폭우로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비오는 날 그렇듯이 도로교통은 정체되어 예정했던 시간보다 거의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였다. 170km라는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체험의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던 우리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과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 속에 10분도 안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정신적 거리감 때문이리라.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처음 와보는 우리들은 정부세종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관청의 부서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이 낯설어 보였으나, 업무의 효율적 면에서는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대통령기록관 입구에 도착한 후 버스에서 내리면서 진희가 보여주었던 통유리의 외관을 실제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와- 멋있다”를 연발했다. 대통령기록관의 첫인상은 매우 멋있다는 표현 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대통령기록관 입구부터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보안 검색대 위에 우리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통과시킨 후 잠시 기다리는 동안 역대 대통령의 모습과 그분들의 싸인 등 많은 것들이 높고 커다란 벽면에 비친 미디어파사드 동영상 위로 흘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은 벽을 응시한 채 웅장한 건물 내 분위기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며 새삼 이 곳이 중요한 곳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해설사분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안내도에 게시되어 있는 관람 순서에 따라 1층-4층-3층-2층의 순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1층 ‘대통령 상징’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지나가는 통로에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로 텍스트 예술을 이용해 역대 대통령의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입체적으로 겹겹이 겹쳐놓은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의 힘을 보여준 대통령님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내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4층 '대통령의 역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변천 과정과 국가의 영토 보존, 국가의 지속성, 헌법의 보호성을 지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무 등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역할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역사가 담긴 모니터를 보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핸드폰을 착용하고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하루를 구성한 전시물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껴보았다. 또한 특별전시존에서는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통령들의 각각의 개성과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3층 '대통령의 공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다가 2022년 현재 용산으로 이전하여 지금은 국민들에게 온전한 공간으로 다가온 청와대의 역사와 변천사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며,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청와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 실제 청와대를 옮겨 놓은 듯한 착각에 빠질 뻔했다.

대통령의 업무공간인 집무실과 접견실,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공간인 춘추관 등에서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서 잠시나마 대통령의 생활을 느끼며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그 포토존 반대편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에서 사용했던 가구들과 대통령이 소장했던 행정 박물 등을 전시하여 그때 그 시절이 갖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껴볼 수 있었다.

2층 '대통령의 선물'은 세계 각국에서 받은 대통령의 선물과 청와대 기념품을 전시한 공간으로 정상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주요 인사에게서 받은 화병, 도자기, 범선 모형, 인형, 장신구 등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선물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시된 선물을 보면서 그 나라가 연상되기도 하였으며, 수공예품 선물들을 보면서 정성이 가득한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갖가지 화려하고 예술적인 기념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선물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느낌이 잘 담겨져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물 받으신 5인 다기 세트였다.

또한 처음 보는 선물 중 도자기 체스 세트는 독특한 표정이 담겨있는 체스 말 덕분에 인상적이었으며, 미국 은행 총재가 노무현 대통령께 선물한 역마차 모형은 정밀하고 섬세한 모양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지하 2층에서는 역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 차량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의전

차량까지 역대 대통령들께서 탑승했던 다양한 차들을 공간에 전시하여 볼 수 있었는데 잘 보존된 차에 번호판 대신 멋진 봉황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였다. 봉황은 예부터 성군의 탄생과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과 함께 궁궐 장엄의 최고 지위를 누리던 것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의전 차량에 새겨진 봉황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한편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동생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대통령기록관 체험 후 우리는 강사 선생님으로부터 선거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학기 9월에 있을 학생회장 선거를 생각하며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했다. 나는 작년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에게 주었던 투표권이 2020년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일들을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생활, 학급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강사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유와 권리만을 생각했던 나의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바르게 정정할 수 있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왜 선거를 해야하며, 선거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준비해 오신 PPT 자료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또한 선거 문제들 중에서 점차 세대가 바뀌면서 시민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지금도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적 대우가 더욱 증가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나 하나 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의 투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오직 결과만 기다리는 시민보다는 먼저 나서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못마땅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이 교육을 듣고 선거에는 항상 신중함이 따라야 하며, 국민 각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여 서로의 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에게도 오늘 받은 값진 교육의 내용을 공유하며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독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대통령기록관 전시 관람 후 다도 체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에서 세종까지 운전해 주신 버스 기사분께서 대통령기록관이 어른들의 과거 추억과 향수를 달래주는 좋은 명소가 될 것 같다며 예순이 되신 당신께서도 친지

분들과 한 번 시간 내어 관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폭우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나 다도 체험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황차를 마시며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호흡 명상에 따라 눈을 감고 온 정신을 코로 숨이 이동하는 느낌을 따라가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만약 가족들과 함께 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부의 전시물을 하나하나 관람해 보고 싶다. 정말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아직 선거에 참여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 선거 체험 기회가 있다면 즐겁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방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바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업 시간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을 오늘 실제 견학해 봄으로써 감동 그 이상의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체험에서 버스 준비부터 간식까지 챙겨주시며 우리들이 편하게 견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세종자치구의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 우수_강채원(중·고등부)

제 목	대통령기록관 견학 후기

10월 13일 학교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으로 견학을 갔다왔다.
기록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기록관 앞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공원을 잠깐 걸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박스모양 건물이 보이고 호수와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였는데 풍경이 정말 예뻐서 사진을 찍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처음에 대통령기록관이 민속박물관처럼 작은 박물관인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크고 으리으리해서 너무 멋지고 놀라웠다. 1층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큰 비디오가 보였는데 거기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나와있었다. 근데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서 왜 없지? 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리무진 같이 생긴 검정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가 있었다. 진짜 보자마자 타고 싶었고 만져보고 싶었다. 로비부터 남다른게 너무 기대됐었다. 입장하면 퍼즐같은 작은 조각들로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사진이 만들어져 있었다.
너무 신기했고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다. 제일 먼저 4층에 가서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활동, 그 시절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던 내용도 있었다. 대통령들의 휘호도 구경하고 그걸 보고 나만의 휘호도 한번 만들어봤다. 나는 진짜 내가 미래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휘호를 작성했다. 2층에는 대통령들이 여태 받았던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관람 전 강의시간에 선생님께서 2층에 있는 선물들은 모두 다 원본이라고 하셔서 놀랐다. 나는 당연히 그냥 본따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정말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선물들이 많았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나도 친구들도 역사에 대해 더 알아가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대통령들께선 이런 책임도 있고 일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나는 뉴스도 잘 안보고 선거와 정치 관련된 나라에서 하는 활동들은 모두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었어서 대통령의 목소리도 잘 모르고 있었다. 끽해야 지나가다 스쳐 듣던게 끝인데 대통령기록관에 갔다와서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연설 내용도 들어보고 그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난 여길 와보고 충분히 역사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 그

학생 중 한명이 나다. 원래 역사에 흥미가 있긴 했지만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대통령들의 훌륭한 활동, 아쉬운 활동 모두 찾아보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더욱 더 알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모든 전시품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라 신기했고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안되더라도 난 다시 한번 또 가고 싶다. 나를 데리고 가준 담임선생님, 저희를 반겨주시고 가르쳐주신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좋은 체험이었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가요!

○ 장려_이하은(중·고등부)

제 목	대통령기록관의 노력(대통령의 일)

학교에서 진로체험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갔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기록관이 하는 일이 단지 기록만 하는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녀오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버스에서 내려 대통령기록관으로 걸어갔는데 호수공원이 너무 아름다웠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공원의 주위를 산책했는데 예쁜 경치를 보며 산책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니 대통령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틀어져 있었는데 정말 멋졌다. 들어갈 때 대통령의 업적으로 대통령들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멋졌다.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되는 게 생각보다 더 느렸다.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뽑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이제는 선거로 대통령을 뽑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드는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 당시 사용했던 물건을 보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당선됐을 때의 영상을 보았는데 내가 티비에서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상을 봐서 신기했다. 대통령이 사용한 물건 중에서 대통령이 입었던 정장이 기억에 남았다. 대통령의 휘호를 읽어보고 나의 휘호도 써보았는데 말 하나하나가 정말 멋진 글이었다. 모두 국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 같았다. 휘호를 쓰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나의 마음을 담아 간결하고 멋지게 쓰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멋지게 쓰지 못한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휘호 쓰기를 끝내고 남은 시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의 안을 자유롭게 감상했는데 3층이 공사 중이라 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2층에 가서 대통령들이 주고받은 선물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멋졌다. 그중 되게 도자기의 종류가 참 많았었던 거 같다. 모두 다 고가의 선물들처럼 보였다. 격식을 차려야 하니까 모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었다. 대통령기록관을 다녀오니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 높아진 거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그때는 어떤 대통령의 흔적이 있을지 보고 싶다.

○ 장려_서하엘(중·고등부)

제 목	대통령 기록관 소감문

대통령기록관으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재미없을거 같았다. 딱히 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세종에 도착했을 때, 맑은 공기와 눈 앞에 펼쳐진 호수가 정말 이뻤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영상을 집중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분들이 정말 다 멋져 보였다.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스쳐 지나갔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을 때,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해설사분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덕분에 잘 배웠다.

특히 휘호 만들기 했을 때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지 생각하며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간을 아껴 쓰고 그 시간을 국민들을 위해 쓸 것이다. 휘호 만들기 시간은 나를 더 생각해보고, 진로결정에도 도움을 주었던거 같다. 그리고 자유시간에는 꼭 해보고 싶었던 대통령 목소리 듣기 체험을 했다. 전부터 쭉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궁금증을 해결해서 좋았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이 가장 재밌었다. 옛날 배경과 화질이 생생해서 그 시절에 빠져든거 같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입었던 옷과 사용했던 총을 봤는데 정말 멋졌다. 실제로 만져보고 싶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올 수 있다면 그땐 더 자세히, 꼼꼼히 볼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와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가족끼리 와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나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설도 해보고 싶고, 전시 작품도 만들어 보고 싶다.

대통령들이 하는 일, 업적, 의상, 물건 등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기억에 남

는 하루가 된 것 같아 소중하게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열심히 지켜주신 역대 대통령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장려_김도연(중·고등부)

제 목	대통령기록관 체험 감상문

담임선생님께서 신청해주신 덕분에 진로체험으로 대통령기록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지루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독보적인 디자인의 건물과 예쁜 공원의 풍경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기 전, 먼저 세종호수공원에 가서 잠시 동안 공원을 둘러보며 산책을 했는데 그 풍경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수공원에서의 짧은 산책을 끝낸 후 기록관 건물로 들어가보니 로비에서부터 커다란 리무진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짧지만 알찬 설명이 끝난 다음 전시관으로 가서 큐레이터님의 설명과 함께 그 시절들의 자료를 보며 문제도 풀어나가고, 역대 대통령들의 물건을 보며 '이 분의 체격은 이정도셨구나', '이분은 이런 업적을 세우셨구나' 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이 진품이라는 것이 참 신기했고,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대통령의 휘호를 보러 갔을 때, 한자 또는 한글로 정갈하게 쓰인 글씨를 보다 보니 '나도 저렇게 정갈한 글씨를 쓰고 싶다' 하며 실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휘호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가치관과 좌우명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큐레이터님과 함께하는 관람 후 나만의 휘호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아쉽기도 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호를 쓰고 자유 관람시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며 관람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 동안 건물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 기쁩니다.

○ 최우수_홍유기(일반부)

제 목	그와(대통령) 나의(국민) 등가 교환은 성립할까?

Ⅰ-ⅰ. 대통령은 세금에(조세)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내 직무인 세금에 대해 역대 대통령은 어떤 생각과 정책을 펴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내게 던져진 화두, 어쩌면 유일한 기회, 대통령기록관에 가면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여기서부터가 대통령과의(기록관) 만남이다.

Ⅰ-ⅱ. 긴장이 앞서는 건 당연했다.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는 되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다가가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정치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 글자에 담긴 무게의 의미는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흐름을 같이하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 그 시기의 대통령 이름, 석 자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외형에(이름) 대해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나, 내형에(이름을 제외한 다른 면) 대해선 모르는 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마우스 커서가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에 대한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내 의지가 컸던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대통령이란 존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사명감이 들어서일까? 그에 대한 결론은 대통령기록관을 충분히 탐방한 후 내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았다. 굳이 대결론에 앞서 소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향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는가?

Ⅱ-ⅰ. 공공기록관리의 선구적인 역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사진과 한미동맹의 시작이라는 대문이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었다.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서한문의 복원을 마친 대통령기록관의 의지와 땀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지금의 환희도 맞이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니 감회가 벅차올랐다.

대통령기록관의 웹페이지가 한눈에 확연히 들어온다. 유형별, 대통령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록물의 소장현황은 국민이 기록물 웹페이지를 항해하기 전 등대와 같은 청사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문서, 사진, 동영상, 음성으로 구분된 콘텐츠 현황은 가장 최신의 자료 현황을 접할 수 있다는 측면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먼저 이를 운영하는 조직도는 체계화되어 대통령기록관을 이끌어 갈 충분한 구성원이란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띈 건 '대통령의 오늘'이란 코너였다. 해는 수없이 바뀌었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에 마치 과거 대통령의 오늘을 현재 내가 마주하는 황홀감마저 들고 있었다. 시간대별로 척척 구분된 섬세함과 일정, 참여 인원까지 기록된 치밀함은 우리가 왜 대통령기록관을 찾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웹페이지의 성패 여부는 검색의 접근성과 쉬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활용 기법은 가히 놀라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눈에 쉽게 띄는 검색창 메뉴가 있는데 '기록물'과 '웹사이트' 방식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검색의 세밀함을 더해주기 위한 배려의 하나로 기록물 검색은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웹사이트 검색은 전문을(full text) 검색할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건 색인 작업을 1일 1회 진행하여 추가·수정 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결과 내 재검색과 검색 제외 기능은 국민이 찾고자 하는 기록물을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 기록의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로서의 reader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2021. 3. 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이관 준비 기간이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철저한 사전 준비, 적절한 이관 기법을 적용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를 선행하며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완벽한 정리 작업을 통해 안전하게 보존하는 부단한 산물의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Ⅱ-ⅱ. 대통령기록관, 존재 이유를 찾다.

세금 담당자로서 조세, 재정 분야에 대한 대통령 관련 자료를 찾았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과소비를 막고 제대로 세금 내는 납세자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훈시하는 장면에서 국가 정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기지가 돋보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6년 당시 조세 관련 국민인식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대한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예산낭비 사례 분석을 통한 지침도 조세가 국가의 바탕을 만드는 명제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의 일상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역대 대통령이 좋아한 음식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었다. **멀게만 생각한 그들도 똑같이 먹고 자고 지내는 같은 사람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왜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며 웃음도 나왔지만, 그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철학에 대한 궁금증이 그 웃음을 비집고 내게 들어왔다. 한식과 양식을 고루 좋아하며 음식을 가리지 않았던 윤보선 대통령, 칼국수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으로 서민 의식을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 IMF라는 절체절명의 시기,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차리라며 나보다 국가를 먼저 떠올린 김대중 대통령의 처세는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리고 해외순방 기록의 경우 국가 간 협력과 경쟁력을 드높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지표의 역할을 했다. 한편 **특별한 만남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발걸음을 위한 대통령의 모습이란 측면에서 감동이 깃들어 있었다.** 장애로 세상을 바꾼 사람 '강영우' 박사를 만난 노태우 대통령, 인종차별을 종식한 '넬슨 만델라'를 만남 김영삼 대통령, 평화를 위해 종교의 경계도 넘어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을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의 변화를 위한 그들과의 만남에 박차를 가한 것이었다. 나아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그 시기에 국가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지점이라는 면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었다. 특히나 편지 기록물이 와닿았던 건 원문 자료가 포함돼 있어 현실적이었고, 편지문 특유의 감성이 대통령의 정서와 맞물려 서한의 형식으로 잘 녹아 있다는 점이었다.

Ⅱ-ⅲ.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

눈여겨본 자료 중 대통령의 웹 기록이 신선하면서도 유난히 반가웠던 건, **특히나 요즘 시대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인 웹을 통한 기록은 영상미가 가미돼 그 현장감을 살린 점이 매력적이었다.** 물론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신중함도 발휘되어야 하지만, 시대에 발맞춰 가는 소통의 흐름에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매개체인 **SNS를 통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를 통해 당시 국가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라는 메뉴는 공공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하며 대통령 관련 자료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물론 특수한 경우의 자료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것을 드러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의지이며 노력의 산물이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더불어 온라인 소식지 온기(On-記)는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색채감 있게 입체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상당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편리하고 신속한 대통령기록관과의 조우는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대통령기록관의 의지가 다분하다는 걸 나타내니 말이다.

Ⅱ-ⅳ. 미래의 아이를 위한 '어린이체험관'

대통령기록관이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공간의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린이체험관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후세에 멋진 유산이 될 이 장소를 우리가(어른) 관심을 두고 가꾸어 나가야 함은 부연할 것도 없다.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이해하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견학·체험 프로그램의 시도가 반갑다. '초등학생이 대통령, 국가의 의미에 대해 무얼 알겠는가'라는 안일한 사고는 국가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대통령의 모습은 현재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대통령기록관에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Ⅲ. 대통령기록관은 더 빛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국가적,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인 **기증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증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해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관과 관계 기관의 노력을 조금 더 당부해 본다.

그리고 **해외순방 메뉴의 사진과 기록물이 조금 더 풍부해졌으면 한다.** 국가는 대외적인 외교 능력에서 그 수완을 발휘해야 존립의 당위성과 국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해외순방 시 대통령이 보여준 일정과 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물론 대외비적인 부분에 대한 선별 작업은 당연시되겠지만, 비교적 국내 정세를 접하는 것에 비해 그 괴리감이 먼 해외순방 시의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끝으로 기록컬렉션의 정책기록이 2013년부터 매년 분야별로 분석돼 그 가치를 빛내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발전도 모색했으면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더 빛날 자격이 충분하다. **국민을 향한 그 시선은 늘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Ⅳ 나는 여전히 대통령기록관에 머문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아직 내 직무와 관련된 세금에(조세) 대한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이란 인물의 모습을 다 파악할 수 없었다. 대통령기록관을 수개월간 찬찬히 들여다본 내가 내린 대결론으로서는 참 낙제점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에 가깝다는 걸 명징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과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의 정정, 주관적인 느낌을 직무에 혼합하여 앞을 향해 이끌면서 조금씩 더 대통령과 그 기록물에 가까워져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이기록 그순간'의 가슴 아픈 과거의 기록을 거울삼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대통령기록관의 존재 이유이며, 내가 여전히 대통령기록관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아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다 해도 난 대통령기록관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의(대통령) 삶은 곧 나의(국민) 삶으로 치환되는 등가 교환의 공식은 시간과 시대를 막론하고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 우수_안종경(일반부)

제 목	축적의 힘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는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이다. 즉, 인간은 기록할 수 있기에 그 이름을 후대에 전할 수 있지만 동물은 물질적인 가죽 외에는 없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기록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먹이사슬의 최강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 누구에게나 기록은 있다. 사소한 메모에서부터 일기장, 자서전 등의 형식으로 그 때의 그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없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 중의 리더이기 때문에 건국 이래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2명 대통령의 기록이 남겨진 대통령기록관은 누구에게나 궁금한 공간이자 가보고 싶은 곳일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나에게 특별한 6월을 시작하는 첫 날인 6월 1일, 나는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했다.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사실 어떤 곳인지 매우 궁금했었는데, 정부세종청사가 바로 눈에 띄였고, 그 옆을 세종호수공원이 감싸면서 초입에 대통령기록관이 위치해 있었다. 대통령기록관 표지석에는 2016년에 개관했음을 알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이 세워진 지 만 7년이 되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무엇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2007년『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 기록물과 이를 보호하는 기록관이 세종시 이전과 발맞춰 2016년에 개관한 것이었다.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만약 이 법률과 기록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은 온전히 보전되지 못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일도 없었을 테니 기록관이 있기에

여러 축적의 시너지가 후대로 전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통령 의전차량이다. 지금은 이 차량을 타지 않지만 누가 봐도 특별한 사람이 타는 차량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고, 번호판에 봉황이 감싸는 청와대 문양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1층에서 가장 전시물로서의 가치가 큰 것은 역대 대통령의 얼굴과 취임 연설 간 중요 키워드가 새겨진 텍스트 아트였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의 형상이 있어 처음 오는 사람도 순서대로 대통령의 얼굴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1층에 이어 2층으로 갈 것이라 기대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특이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윗층인 4층까지 가서 역순으로 내려오는 관람순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4층으로 올라가니 대통령제의 변천사부터 그 시대의 선거 벽보를 볼 수 있었고,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전시하고 있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간 외교를 대표하는 역할 등 리더 중의 리더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통령이 갖는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르는 부담이 재임 5년간 얼마나 뒤따를까 생각하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4층에서 인상적인 것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하루를 나타낸 기록 영상물이었는데 아침부터 준비해서 취임식장까지 이동하여 취임 연설을 하고, 그 외 국내·외빈들을 접견하는 하루의 과정이 영상 속에서 볼 때는 그저 행복한 하루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사(巨事)를 치른다고 느낄 만큼 바쁜 하루였다.

3층으로 내려와서는 사진 촬영을 많이 해야 할 장소가 펼쳐져 있었다. 바로 접견실과 집무실인데, 청와대에서와 비슷한 크기로 재현이 되어 있었고, 직접 앉아볼 수도 있었다. 특히 집무실 책상이 매우 컸는데 그 의자에서 청와대 문양을 뒤로한 채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초상화도 기록의 전당에 전시되어, 어린이나 학생들이 3층을 관람하면서 “나도 언젠가 한 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봐야지”라는 큰 꿈을 갖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마지막 2층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외교활동을 펼치며 정상들이 선물한 선물 컬렉션과 청와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받은 기념품은 개인 소장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통령 또한 공직자이기에 외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기념품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서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생각해보니 만약 이 선물들이 개인 기념품으로서 퇴임 후 그대로 가져갔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와 대륙별로 다른 종류의 선물들을 볼 기회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외국의 기념품들은 정상 간의 선물이기에 아무 것이나 줄 수 없을 것이고

최대한 그 나라의 특색을 반영한 물품일 것이기에 각양각색인 점이 특징이었다. 청와대 기념품 또한 알고 있던 것이 청와대 시계 정도였는데 시계 외에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한 공인구 기념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와대 기념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1층부터 4층까지 전시된 대통령기록물들이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것도, 아직 공개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관람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 시대를 떠올리지 못했을 것을 기록에 의해 후대에 전해지고 그것이 모여 1~19대까지 총 12명 대통령 기록의 축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축적은 말 그대로 쌓인다는 것인데, 쌓을 것이 없으면 쌓일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6년 개관한 대통령기록관이 있기에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현재처럼 보고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모두가 방문했으면 좋을 대통령기록관에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으로는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자로 하여금 대통령기록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견학 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정부세종청사의 많은 기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멀지 않고 도보로 방문이 가능한 곳에 이처럼 좋은 기록물 관리의 보고가 있는데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록은 단순히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가까운 대통령기록관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관의 어떤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구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②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별 추진한 업적과 성과를 전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시되어 있는 12명의 대통령이 추진한 업적과 성과는 모두 제각기 다를 것이다.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또는 퇴임하기까지의 기록된 업적 중 주요 성과를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은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③ 나만의 기록관 체험부스(가칭)를 전시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있다면 관람객들에게도 본인의 기록관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체험부스를 통해 경험하는 장(場)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경우 본인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어린이나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원대한 미래와 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서 스크린 모니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관람객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나도 방문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세종시가 궁금해 지도를 보던 중 정부세종청사 옆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보게 되었고, 언제 한 번 꼭 가봐야지 생각하다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방문한 것이다. 세종시라는 지리적 위치를 차치하고서라도 가까운 천안의 독립기념관처럼 대통령기록관 또

한 국민들에게 이 곳이 존재한다 라는 각인을 위해 SNS를 비롯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야만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유행인 시기에는 이 곳도 예약제를 통해서만 관람객이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 이 좋은 시설과 전시물을 갖춘 대통령 기록관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쉬운 방식은 세종시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견학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방문하게 한다면 입소문으로 긍정적 홍보 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나도 아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꼭 한 번 대통령기록관에 데려오고 싶다.
우리나라의 수반이자 리더인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보면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비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축적의 힘은 바로 기록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기록관에서의 하루를 통해 나도 내 살아온 인생을 어릴 때부터 되돌아보기 위해 어릴 적 사진첩과 학창시절 성적통지표와 표창장, 졸업장,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내 기억 속에는 남아 있었을지언정 내 가족과 후손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축적된 기록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축적의 힘은 바로 오늘 내가 남긴 기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고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평소 기록을 잘하지 못한 분들은 대통령기록관을 꼭 한 번 방문해보시라.
그 곳에 가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록의 소중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 장려_류세현(일반부)

제 목	기록을 타고 성큼 다가섭니다

1. 대통령에 관한 평소의 잡념

대통령에 관해서 평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만은 그 아늑한 말을 누리지 못할 성싶습니다. 5년 임기 내내 대통령은 '나도 인간이오' 엄살은 꿈도 못 꿀 터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설렙니다만, 이젠 철없이 그 설렘으로만 생각을 채우기엔 나이가 찼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보장하는 무수한 혜택 바로 옆에 최고의 책임이 넘겨주는 막중한 부담이 절로 그려집니다. '나'를 잠시 미뤄두고 '오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므로, 그리하여 오천만의 시선이 제가끔 대통령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에 관해서 평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철통 경호를 갖춘 구중궁궐에서 국정을 보고받고 지엄한 분부를 내리는, 그리하여 대통령은 흡사 국왕의 이미지를 깊게 품고 있습니다. 국왕은 위엄과 신비의 존재입니다. 웬만해선 얼굴조차 한 번 보기 어려운, 높고 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말만 무성한 그런 존재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그런 아우라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궁궐로 일컬어지던, 대통령의 신비주의에 일조하던 청와대는 개방된 후 1년간 330만 명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관심은 결국 대통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국왕의 아우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비록 얼결에 방문하게 된 것이지마는, 대통령기록관 입구로 향하면서 저는 내심 '얼핏 보이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우라를 걷어낸 대통령의 친근한 면모'를 대통령기록관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2. 처음으로 방문해본 대통령기록관

지나치기야 수차로 했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턴 면접을 보러 종합청사에 들렀다가, 먼 길 나선 김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차에, 지도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면접을 끝내고 힘빠진 걸음으로 터덜터덜 기록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방문 당시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해보고자 현재형으로 씁니다.

2-1. 입구에서

모퉁이를 돌자, 국새 보관함을 본떴다는 반듯한 육면체 형의 유리로 된 외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새는 임금의 권위와 권한을 상징한다, 특히 국새는 문서에 찍힘으로 하여 그 가치를 드러낸다, 거개가 문서로 된 대통령기록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과연 적절한 형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입구로 들어섭니다. 비석 6개 각각에 한 자씩 쓰인 '대 통 령 기 록 관' 이 눈에 띕니다. 동화에 나오는 거인의 듬성듬성한 치아가 떠올라 남몰래 피식 웃습니다. 그 덕에 대통령기록관이라는 딱딱한 명칭에서 비롯되는 지루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느낌도 듭니다.

2-2. 1층(대통령의 상징)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노태우 전 대통령 대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대까지 의전 차량으로 쓰인 캐딜락 리무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둡게 깔리는 조명에 한층 근사하고 우아해 보입니다(리무진에 눈이 팔려 주위의 미디어 자료들은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아쉽습니다).

의전 차량의 왼편으로 들어가면, 무채색 글씨들로 꼼꼼히 그려진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이 큼직하게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가슴 벅찬 텍스트 아트는 처음 보는 듯합니다. 임기 동안 대통령 각자가 어떠한 지향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며 그 성과와 평가는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편으로, 임기 내내 수시로 교차하는 영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라의 얼굴' 이 되어 준 그들의 온화한 미소 또는 근엄한 무표정이 옥색 배경으로 은은히 떠오르는데, 무언가 벅차오르는 게 있어 달래 누르느라 잠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꽤 오래 여기 머물면서 초상 하나하날 뜯어보다가 문득 들리는 주변 소음에 정신을 차리고 4층으로 향합니다.

2-3. 4층(대통령의 역할)

4층의 제목은 '대통령의 역할' 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여기선 대통령제 일반과 대통령 직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대통령제에 관련되는 제도·정책의 국내 흐름이 전시에 잘 녹아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대통령제는 한국전쟁 이후에 탄생한 제헌헌법으로 공식화되고,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본질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역사가 여러 사진과 기록들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됩니다.

대통령제 관련 개헌 자료들이나 역대 대통령의 입후보 서류나 당선증, 취임 선서문 등 역대 선거 기록들이 유리관 안에 정연하게 놓여있습니다. 보기 좋게 굵은 글씨로 짤막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쓰이고 다루어진 문서들이 제가끔 어마어마한 역사와 가치를 품고서 외려 관람객들을 도도히 쳐다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기가 죽어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뜯어볼 뿐입니다.

전시장 한편에 대통령 육성을 들을 수 있게끔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이승만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을 차례로 누릅니다. 평소 육성을 쉽게 접할 수 없던 대통령을 고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우라가 한 꺼풀 걷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전시 코너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길목에는 대통령의 휘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깊은 인상을 남기지만, 특히 기억에 남을 듯한 휘호라면 '踏雪野中去'로 시작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라 하겠습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구절의 뜻은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나의 행적이 나중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로 풀이됩니다. 지도자, 선두자의 위치에 있거나 있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아로새길 만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슬쩍 제 가슴에도 새겨봅니다. 그 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敬天愛人',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大道無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등등이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육성만큼은 아니지만, 글씨 역시 아우라 한 겹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에 한 걸음 다가감을 느낍니다.

2-4. 2층(대통령의 선물)

4층에서 오래 머물다가 2층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엔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진귀하고 찬란한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럽풍의 꽃병이나 찻주전자,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인형, 동양풍의 자기 등등 구경할 맛이 나는, 눈이 즐거운 전시입니다. 비슷한 결의 선물들끼리 모아 전시해놓고 있어서 관람하기에 편합니다만, 나라별(또는 대륙별)로 전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한 전시 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역대 대통령이 주변에 제공한 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년필, 찻잔 세트, 시계 등등 정말 탐이 나는 선물이 여럿 있는데, 언젠가 한 번 꼭 받아보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2-5. 기획전시(이승만 전 대통령과 한미동맹)

상설전시 관람이 모두 끝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김에 한 번 더 텍스트 아트로 그려진 대통령 초상들을 둘러보고, 기획전시를 보러 갑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시작으로 거슬러 가보는 전시라 하는데, 호기심이 동합니다. 전시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전시된 자료와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제법 풍성합니다. 한미동맹을 맺는 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이만큼이나 컸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덕에 누리는 혜택은 비가시적입니다만, 그 혜택이 비가시적일 수 있는 것이(즉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곧 한미동맹의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밖에 역대 대통령의 큼직한 대미외교를 전시해놓은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두 정상이 서로 웃으며 안거나 악수하는 모습에서 뭔지 모를 미더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미더운 건지, 한미동맹이 미더운 건지, 미국이 미더운 건지, 뭣도 아니면 그저 훈훈함을 미더움으로 착각한 건지 모를 일입니다.

3. 총평 및 덧붙이는 말

정말 좋았습니다. 먼 길 나선 김에 뭐라도 하자는 정처 없는 각오 덕에 즉흥적으로 방문한 것이지만, 여러 날 설레하며 기다리던 일정들 못잖게 제게 만족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종 감탄하면서, 새삼 알아가면서, 무척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관람을 마쳤습니다. 3층 공사로 실감형 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어차피 혼자 방문한 터라 3층이 열려 있었더라도 그저 다른 관람객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신나 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진 찍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을 듯합니다.

‘얼핏 보이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우라를 걷어낸 대통령의 친근한 면모’를 대통령기록관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썼는데, 아우라를 한 겹 두 겹 걷어내는 뜻깊은 경험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기대에 들어맞는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전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소탈하고 친근한 평범한 일상들이 담긴 자료(일과 중 식사, 명절날 가족 맞이, 참모들과 하는 소소한 대화 등등), 대통령의 취미 생활에 관한 자료(즐겨 읽던 책, 즐겨 보던 영화, 사용하던 펜이나 붓,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 등등), 혹은 영부인에 관한 여러 기록 등 여하간 그런 내용으로도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개중 상당 부분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만,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전시라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이 글을 빌려, 기록 복원 과정을 맡으시는 모든 담당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장려_주호연(일반부)

제 목	색안경을 벗고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가오는 느낌은 어떠한가? 보다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아마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는 비교적 부정적인 감정이 앞설 것이다. 어쩌면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일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접하기 쉬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의 현장을 목격하기보다는, 조롱 섞인 비난의 글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그저 진영의 논리에 서서 상대를 헐뜯고 맹목적인 비난의 장면을 더 많이 목격했기에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끝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태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색안경을 벗고,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들을 보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선조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세웠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다방면으로 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냈는데, 이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를 힘차게 이끌고 나갔던 대통령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이런 뿌듯한 성과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노력을 권태로이 여기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역사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곳,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 호수공원 근처에 있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다. 필자 본인은 세종시에 이사 온 지도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지만, 오히려 너무 가깝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6학년 학생들과 함께 1년을 보내게 되면서 한 번쯤은 방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6학년 사회 교과서 가장 첫 단원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 단원을 수업할 때 정확한 사실들을 깊이 있게 더 학습하여 교육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두에서 밝혔듯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얼룩진 감정적인 색안경을 벗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자취를 읽어가며 참여적인 민주시민의 태도를 지니고 싶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총 5개의 층(지하 1, 지상 4)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대통령의 상징, 2층 대통령의 선물, 3층 대통령의 공간, 4층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주제별로 전시를 관람하기 좋았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한 미국 캐딜락 사의 대통령 의전 차량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대통령 의전 차량>

차량을 관람하고 왼편으로 들어가 보면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텍스트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짧게나마 각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철학 삼아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 관람은 4층 '대통령의 역할'로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의 대통령제의 변천 과정과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변천 과정은 조금은 아픈 역사라고 생각이 든다. 누구에게도 흔들려서는 안 될 법과 원칙이 아쉽지만 몇몇 대통령들의 입맛에 따라, 유리한 실정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고 개정되며 올바른 정치 체제를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하다는 말처럼 옳지 않은 부분을 국민이 개선해 나가며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더욱이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는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생생히 느끼게 해줄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역사적 체험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필자 본인은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데 본인이 경험하고 자라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및 취임사를 살펴보며 교과서 이상의 역사의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바라보고 다짐했던 취임 선서문, 취임 공식 휘장 등을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그들이 당선되었을 그 당시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휘호를 끝낸 뒤에 생각했을 그들의 초심과 결연한 다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치고 3층으로 내려오면 '대통령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전시가 펼쳐

진다. 청와대 개방을 한 이후 몇 번이고 방문해 보고 싶어서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예약 자리가 없거나 자리는 있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되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었다. 대신 우연히도 대통령기록관에 왔다가 대통령의 공간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대통령의 공간>

역대 대통령들이 이 공간에 앉고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든 점이 많았겠냐 마는, 정말, 이 공간에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다는 어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 공간이다. 한국적인 미를 살리고 고풍스럽게 세련된 미를 가진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왠지 모를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프레스룸에서는 '아! 뉴스에서 자주 보던 공간이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잠깐 잊고 있던 청와대 견학을 다시금 서두르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관람을 마친 후 옆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모아 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사진만치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각 대통령의 성향과 느낌이 알게 모르게 녹아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나름의 의미도 있었다.

3층 관람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면 왠지 모르게 멀리서부터 휘황찬란한 느낌이 든다. 바로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을 전시해 놓은 '대통령의 선물'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념품의 모양새가 아니라 화병, 도자기, 범선모형, 인형, 장신구 등 다양한 종류의 웅장하고 고고한 대통령의 선물과 청와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다. 같은 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말 문화마다 모양새가 다름을 한 눈에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된 모든 기념품이 너무나도 값지고 중요한 물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혹시 대통령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면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엉뚱한 궁금증도 들기도 했다. 사실 선물이 주제이다 보니 더욱더 엉뚱한 궁금증들이 많이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유난히 장신구에 관련한 것이 많길래 혹시 세계에서도 많지 않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첫 여성 대통령이라 장신구가 많은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였다.

2층까지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내려오면 아직 보지 못한 공간이 있다. 바로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 체험관이다. 사람이 많지 않은 날에 방문해서 괜스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어린이 체험관은 밖에서만 스윽 둘러보고 나왔는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보니 대통령을 주제로 체험과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 되기 프로젝트,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나의 기록, 대통령 전용기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관람 당일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층별 안내를 살펴보다 보니 지하 2층에 의전 차량을 전시한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나로서는 지나치지 못할 곳이라 너무 아쉬웠는데, 또 수기를 쓰면서 문득 생각을 해 보니 어쩌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할 목적이 생긴 것이라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다.

이 공간에 방문하면 대통령들의 수많은 업무 자료들, 그간 고민의 흔적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대통령들의 업적,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맹목적인 비난과 조롱 혹은 그저 무책임하게 바라보기 전에 한 번쯤은 제대로 사실을 바라보고 이해해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묵묵히 전시를 바라보며 나도 그들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고민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어쩌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체험학습을 이곳으로 와서 함께 세종호수공원에서 도시락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장려_이상열(일반부)

제 목	민주주의의 선순환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갓 성인이 된 스무살 무렵에 갔을 때는 특별히 무언가를 느끼진 못했다. 그냥 잘 만들어진 기념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조금 더 삶을 살아보고, 시간이 지나 다시 체험하게 된 대통령기록관은, ‘민주주의의 선순환’ 이라는 말을 내게 던지는 것 같았다.

입구에 들어가서 마주한 기록관의 관람구성은 신선했다. 4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대통령의 역할과 공간 그리고 선물로 이어지는 구성이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대표인 ‘대통령’과 접목한 관람구성은,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고, 다음 층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다려지게 하는 설렘을 주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로 시작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민주주의를 이끄는 최선봉에 서 있었던 대통령들의 역할과 다짐을 강조하고 있었다. 내가 민주주의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한 것은 바로 여기였다.

기록관에는 아이와 부모,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관람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 부모의 부모들은, 과거에 직접 겪었던 민주주의의 현장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고, 또다시 자녀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 기울이며 기록관 속 전시에 집중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람들은, 각자가 경험한 세대의 대통령들이 조금씩 달랐기에,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의 역사에 궁금증을 가져보는 한편, 지나왔던 각각의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있던 본인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내게 대한민국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의 모습으로 보였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며 거대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 확신했다.

모든 대통령은 본인의 휘호를 하나씩 천명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휘호는

‘대도무문’이다. 큰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휘호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인데,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의미로 느껴졌다.

이 휘호를 마주한 뒤, 다음 전시관으로 떠나면서 약간의 여운이 남았다. 전시관에서 마주한 대통령들의 시대상에 몰입하면서, 그들의 선택과 고민에 대해 좀 더 깊은 생각에 잠겨봤다. 대통령 또한 사람이기에,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걱정과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확신과 신념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내 생각에 답을 주지는 않았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남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역할’에서는 ‘시간’에 대한 전시관이었다면 이어지는 ‘대통령의 공간’전시관에서는 ‘현장’에 대한 전시관이었다.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외교를 펼치며 치열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논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리를 직접 앉아보고 사진으로도 남기며 가장 동적인 전시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집무실 속 대통령의 의자에 한명 한명 앉아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집무실 속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모든 분이 대통령처럼 보였다.

‘대통령의 공간’ 마지막 전시는, 기록의 전당이었다.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함께 대통령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유독 대통령 한분 한분을 유심히 보시는 어르신이 있었다. 몸이 다소 어려우신지 구부정한 자세로 아주 천천히 관람하시던 어르신은 스치듯 빠르게 구경하고 지나간 어린아이들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기록을 누구보다도 몰입해서 보고 계셨다. 본인의 세대에 겪었던 대통령의 기록이, 본인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천천히 곱씹어보고 계신 것 같았다. 그런 몰입의 순간을 보며, 어느새 나도 덩달아 어르신의 옆에 서서 대통령의 기록을 같이 마주하고 있었다. 나의 삶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천천히 떠올려보며.

대통령기록관의 마지막 전시관은 ‘대통령의 선물’이다. 다양한 외교활동을 다니며 대한민국이 받은 선물들이 전시관을 가득 채웠다. 몽골, 네덜란드, 터키, 인도 등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망라한 선물들이 매우 신기했다. 그 종류도 참 다양했다, 찻잔부터 시작해 범선, 토기 인형, 보석함 등등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선물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 같아 괜스레 뿌듯했다.

그렇게 마지막 전시관을 지나며 다시 마주한 것은, 처음 들어갈 때 지났던 ‘대통령의 전당’ 이었다. 이 전당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이 무엇일까?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과 생애, 활동들을 모아보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홈페이지에 나열되어있는 개념적인 이유가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금방 하나의 답으로 풀렸다. ‘민주주의의 선순환’.

과거부터 세계에는 다양한 체제와 이념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며 실패와 발전을 거듭하는 이념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기록은 곧 민주주의의 발자국이 된다. 설령 그 발자국들이 때로는 엇나가기도, 지워지기도, 누군가에 의해 변질되기도 하지만, 결국 발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은 민주주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은 민주주의의 선순환을 위한 매개체로써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아이와 어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그 세대의 산 증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패와 성공을 후대에 증언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끝없는 보완과 발전을 후대가 이어받아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기록관은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다. 민주주의 태동과 변화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극과 극을 보일 것이다. 평가는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 또한 개인의 몫이다. 그런 개인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왕들도 본인들이 역사에 어떻게 실렸는지 보지 못했다. 하물며 백성들은 근처도 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고, 방법 또한 다양하다. 시대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선순환을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은, 이곳에 오는 모두에게 하나씩 울림을 던진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젊은이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불씨를, 부모와 어르신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그 순환의 고리는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런 뜻깊은 공간을 가꾸고, 이어가는 기록관의 모든 분에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 헌신과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